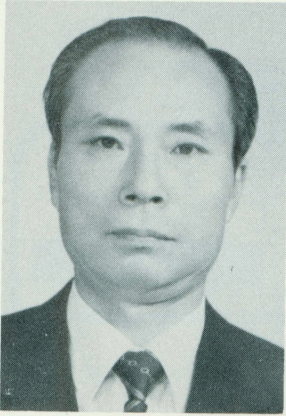


第22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堤川頭鶴農樂



忠 清 北 道



人事말씀

忠淸北道知事 任成宰

豊盛한 結實을 거두는 上달(上月)의 오늘 民族의 傳統文化 健承을 다짐하며 우리 固有의 民俗藝術을 發掘 整理하는 第22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를 祝賀하면서 150만 道民과 더불어 이번 祭典이 우리 民族의 矜持를 다지는 契機가 되기를 期待합니다.

民俗藝術이란 50年 歷史를 이어오는 동안 우리의 生活속에 自然發生的으로 定着된 思想과 行動의 精髓이기 때문에 그 時代的 思想과 生活相을 表出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어느 特定人の 創作이거나 意圖的 產物이 아니라 生活環境 生活樣態에서 어떤 意味를 含縮한 하나의 斷片이기도 합니다.

이번 本道에서 出品한 堤川의 頭鶴農樂도 例外가 아닙니다.

堤川市에서 6 km 떨어진 頭鶴洞마을의 農樂은 200年前부터 이마을에 傳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마을 住民 모두가 農樂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純粹한 原型을 試練코자 하는 것입니다.

豊年을 祈願하고 秋收를 感謝하는 흥겨운 農樂의 가락은 비록 單調롭지마는 그 속에 우리 民族의 哀歡이 남겨있기에 우리에게 親近感과 無限한 感動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頭鶴農樂競演을 지켜 보시고 많은 격려의 갈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忠清北道代表團

- 團 長 李 孝 桂 (충청북도부지사)
- 副 團 長 金 東 鎭 (예총충북도지부장)
- “ 洪 舜 基 (충청북도내무국장)
- “ 李 承 雨 (제천시장)
- 指導委員 鄭 觀 玉 (제천시새마을민간협의회장)
- “ 成 範 模 (평동제천시협의회장)
- “ 李 在 露 (제천경찰서장)
- “ 朴 東 起 (제천시교육장)
- “ 黃 晚 性 (제천시시정자문위원)
- “ 申 衡 雨 (“)
- “ 孫 在 均 (충청북도정책자문위원)
- “ 金 基 宗 (제천시사회정화위원장)

제천두학농악단

출연자명단

指導 · 淸州教大 朴進 教授
 出演 · 堤川市 頭鶴洞

상 쇠	이 경 재	49세	복 고	경 근	55세
부 쇠	윤 남 산	73	"	최 만 준	39
"	한 일 동	60	"	이 돌 천	63
장 고	김 만 복	58	"	강 경 원	55
"	김 경 성	50	"	전 인 덕	40
"	주 창 수	48	"	이 근 식	40
징	강 성 한	56	"	성 희 경	45
"	이 종 태	66	"	임 경 호	48
"	유 시 학	54	"	정 순 택	47
북	원 응 상	61	셋 님	김 진 봉	64
"	정 문 교	53	포 수	김 홍 구	60
"	권 상 열	56	영 기	허 용 범	46
회 적	한 선 남	70	"	권 봉 식	40
"	이 점 식	65	기 수	장 상 득	28
복 고	강 천 희	51	"	허 용 범	44
"	정 영 민	47	"	엄 광 석	30
"	이 동 섭	46	"	강 성 웅	31

※主務 許正康 · 李靑燮 外 補助出演者 多數

解 說

頭鶴洞 마을은 忠北의 北端 堤川市의 都心에서 6 km쯤 떨어진 農村마을로서 옛부터 農樂마을로 이름이 나 있다.

隣近마을에서 당굿이나 우물굿, 정지굿을 할때나 두레논일을 할때면 으레히 불리어 다녔고 陰歷 7月 호미씻이가 되면 크게 農樂관을 벌여 마을사람 모두가 즐겨 왔다.

農樂놀이의 形態는 忠北農樂의 特徵인“싸움진”을 주로 하고 있는데 五方진치기, 四方진치기와 兩軍의 接戰場面을 보이는 十字陣進退陣의 特徵을 보이고 있고 樂器를 다루는 技巧를 보이는 장기자랑을 곁들이고 있다. 또한 잡서기와 놀이가 흥겹다

이 農樂은 200余年 前부터 이어왔으며 지금은 後繼者인 상쇠 李敬宰씨가 이어가고 있다.

• 表 紙 說 明 •

보물 제459호로 지정된「七層樽城石塔」(제천시장락동소재) 앞에서 試演하는 堤川頭鶴農樂팀.

받들자 祖上의 얼

피우자 文化의 꽃



第22回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1981. 10. 22~24 (3일간)

인 천 직 할 시